

코오롱 김천공장 화재 “페놀 유출”

3월1일 페놀 플랜트 3층에서 폭발사고 … 방화수에 섞여 낙동강으로

3월1일 오전 3시10분경 경북 김천시 대광동 코오롱(코오롱유화) 김천공장 3층 건물 페놀(Phenol) 제조시설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 중이던 김도형씨와 권병현씨 등 2명이 숨졌다.

또 함께 작업 중이던 박진우씨를 포함한 직원과 용역 인부 등 모두 14명이 부상해 김천제일병원과 김천의료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불은 공장 전체 10개 건물 가운데 제1공장(면적 8472㎡)의 페놀수지 제조시설 2층에서 평하는 강한 폭발음과 함께 시작됐다.

화재 당시 건물에는 코오롱 직원 13명과 구미 소재 용역회사 제니엘 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들은 첫 폭발에 이어 강한 폭발음이 7-8차례 들렸다고 말했다.

불은 3층 건물을 모두 태우고 인근 111㎡의 1층짜리 물품 보관창고로 옮겨 붙어 다 태운 뒤 화재발생 4시간 20여분만인 3월1일 오전 7시30분경 진화됐다.

폭발 당시 파편이 200여m 떨어진 김천공장 본관까지 날아가 본관 대형유리 6개가 부서지고 인근 공장 외벽이 일부 파손됐다.

사고 현장에는 페놀수지 관련제품 10만ℓ 등 인화성 물질이 다량 쌓여 있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공장 인근에는 대광천이 흐르고 있고 대광천은 감천에 합류한 뒤 구미시 선산읍에서 다시 낙동강과 만나 페놀수지 일부가 폭발·화재사고 진압과정에서 방화수에 섞여 공장 외부 하수구를 통해 흘러간 것으로 환경청과 수자원공사측은 추정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페놀 검출은 코오롱 김천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공정재료인 페놀수지와 공장 바닥에 있는 페놀찌꺼기 일부가 소방수에 섞여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미광역시취수장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의 상황실 관계자도 “김천 코오롱 공장 사고가 난 뒤 3월1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상황을 파악해왔다”며 “3월2일 오전 5시가 넘어서부터 고아읍 송전대교 상류에서부터 페놀이 검출된 점으로 미루어 코오롱 사고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코오롱 고위 관계자도 “공장 화재 당시 폐수처리장이 100% 가동되고 있어 내부에서 페놀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고, 진압과정에서 소방수에 섞여 공장 바깥에 있는 하수관을 통해 유출됐을 수는 있다”고 페놀 유입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페놀이 대광천과 감천을 타고 낙동강 본류에 합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이 방제작업을 충실히 했다면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재사고를 진압했던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당시에는 소방수가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을 만큼 대형 사고였다”며 “대형 화재였던 만큼 김천시 등 유관기관에 모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유출량이 많지 않아 수돗물은 오전 10시45분경 취수가 정지된 이후 5시간만에 취수가 재개됐지만 자칫 제2의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가 될 뻔했다는 점에서 구미시민 등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03>